



충남의 인구 변화

전영노 산업경제 연구부 위촉연구원

1. 총인구의 변화

충청남도의 총인구는 2001년 말 현재 1,928천명으로 전국의 3.99%이며, 1990년부터 1994년까지 감소했으나, 1995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충남 북부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등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인구에 대한 충청남도 인구의 비중은 1990년의 4.64%에서 2001년에는 3.99%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의 인구증가 추세(0.3%)가 전국(0.81%)보다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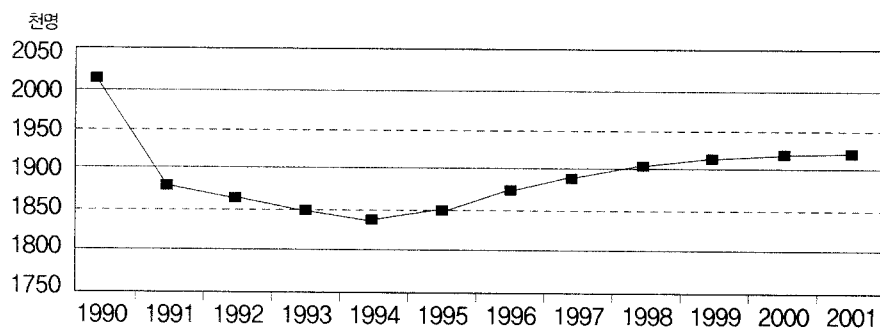
[표-1] 연도별 전국 및 충남인구의 변화

(단위: 천명,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 변화율 ('90~'01)
전 국(A)	43,411	43,296	44,568	45,077	45,512	45,981	46,433	46,885	47,173	47,542	47,976	48,289	0.81
충 남(B)	2,013	1,882	1,872	1,858	1,844	1,855	1,878	1,903	1,919	1,926	1,930	1,928	0.30
충남의 비중 (B/A*100)	4.64	4.35	4.20	4.12	4.05	4.03	4.04	4.06	4.07	4.05	4.02	3.99	-

자료 : 주민등록인구(http://www.nso.go.kr/cgi-bin/sws_777pop.cgi)

[그림-1] 총인구의 변화 ('90~'01)





2. 지역별 인구 변화

충청남도의 인구변화를 행정계층별로 보면, 1995년 이후는 동부의 연평균 인구변화율이 3.61%로 총 인구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읍지역과 면지역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계층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1990년에 동지역은 24.5%, 읍지역은 25.3%, 면지역은 50.2%였으나, 2000년에는 동지역이 31.6%, 읍지역은 22.7%, 면지역은 45.7%로 동부의 인구비중은 높아진 반면에 읍지역과 면지역은 감소하고 있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충남의 도시화율을 보면, 1990년에 49.8%에서 2000년에는 54.3%로 증가하였으나, 전국의 도시화율보다는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표-2] 행정구역 계층별 인구규모 변화 및 도시화 추세

(단위 : 인,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연평균증가율		
				'90~'95	'95~'00	'90~'00
충청남도	2,027,766 (100.0)	1,855,346 (100.0)	1,930,234 (100.0)	-1.76	0.79	-0.49
동 부	496,411 (24.5)	510,502 (24.5)	609,445 (31.6)	0.56	3.61	2.07
읍 부	512,867 (25.3)	459,436 (24.8)	438,269 (22.7)	-2.18	-0.94	-1.56
면 부	1,018,488 (50.2)	885,408 (47.7)	882,520 (45.7)	-2.76	-0.00	-1.42
도시화율	49.8	52.3	54.3	0.99	0.75	0.87

자료 : 충청남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각년도.

[표-3] 시 군별 도시화 현황(00)

(단위 : 인, %)

구 분	시·군인구 (A)	도시계획구역기준		행정구역기준		도시화율	
		도시인구 (B)	비도시인구 (C=A-B)	도시인구 (D)	농촌인구 (E=A-D)	도시계획기준 (B/A*100)	행정구역기준 (D/A*100)
합 계	1,930,234	1,105,542	824,692	1,075,292	854,942	57.3	55.7
천 안 시	425,135	359,248	65,887	333,535	91,600	84.5	78.5
공 주 시	135,931	68,577	67,354	76,199	59,732	50.4	56.1
보 령 시	118,721	58,171	60,550	70,548	48,173	49.0	59.4
아 산 시	185,847	105,845	80,002	90,175	95,672	57.0	48.5
서 산 시	150,329	94,536	55,793	87,760	62,569	62.9	58.4
논 산 시	142,828	78,750	64,078	79,529	63,299	55.1	55.7
(계룡출장소)	27,578	27,578	2,000	27,578	-	100.0	100.0
금 산 군	64,785	29,064	35,721	25,321	39,464	44.9	39.1
연 기 군	80,851	47,191	33,660	34,992	45,859	58.4	43.3
부 여 군	92,842	38,000	54,842	29,234	63,608	40.9	31.5
서 천 군	75,400	31,081	44,319	33,031	42,369	41.2	43.8
청 양 군	41,093	10,359	30,734	11,757	29,336	25.2	28.6
홍 성 군	95,600	45,865	49,735	51,913	43,687	48.0	54.3
예 산 군	101,692	45,623	56,069	51,538	50,154	44.9	50.7
태 안 군	68,784	19,356	49,428	27,972	40,812	28.1	40.7
당 진 군	122,818	46,298	76,520	44,210	78,608	37.7	36.0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현황(2000년 12월 31일 기준), 2001.

시 군별 인구변화는 제조업이 발달한 북부지역의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와 경부축 상에 위치한 연기군 등 인구의 비중도 높고 증가추세를 보이는 지역, 청양군 태안군 금산군 등 7만명 이하의 과소지역으로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부여군 서천군 등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서 아직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연평균 2% 이상의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화되고 있다.

2000년 12월말 현재 천안시 436,708명(22.6%), 아산시 188,372명(9.8%), 서산시 150,504명(7.8%)



등 도 농통합시(계룡출장소 포함)에 충청남도 인구의 60.6%가 분포해 있다. 특히 충청남도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는 1995년 이후 각각 연평균 4.62%, 2.95%, 0.95%의 인구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등 전통적인 농수산업지역은 각각 연평균 -0.48%, -0.92%, -1.09%로 군지역보다는 소폭이지만 여전히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으며, 군지역 중에서는 1995년 이후 연평균이 유일하게 연평균 0.19%씩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은 각각 연평균 -2.62%, -2.29%, -2.22%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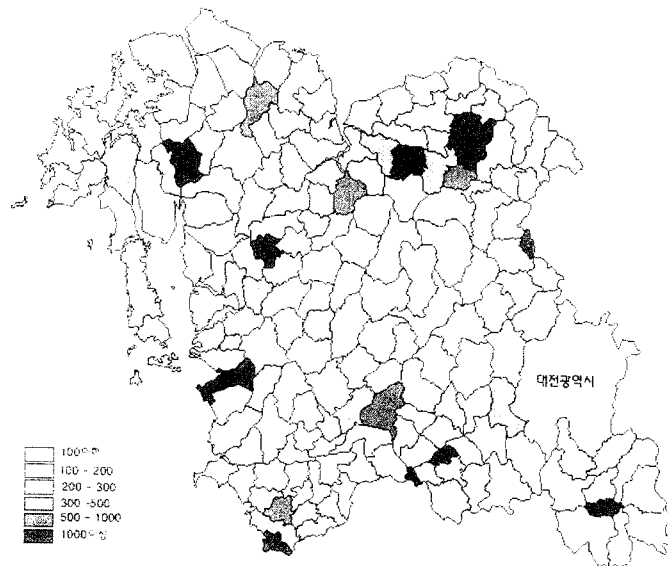
[표-4] 시 군별 인구변화 추이('90~'01)

(단위 : 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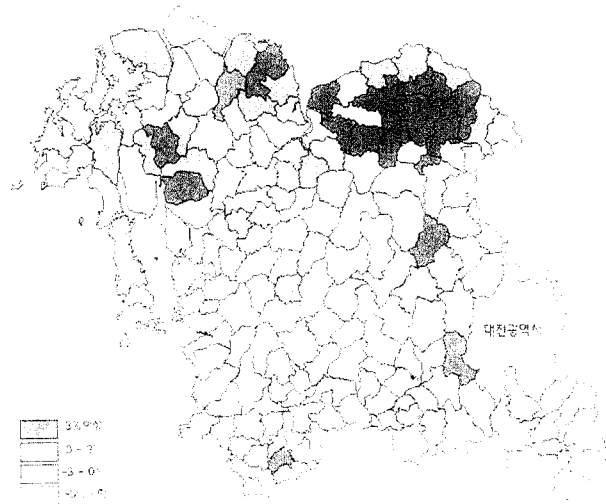
구 분	1990년	1995년	2001년	연평균 변화율	
				'90-'95	'95-'01
충 청 남 도	2,027,766(100.0)	1,855,346(100.0)	1,928,088(100.0)	-1.76	0.66
천 안 시	314,255(15.5)	334,800(18.0)	436,708(22.6)	1.27	4.62
공 주 시	158,075(7.8)	138,202(7.4)	134,383(7.0)	-2.65	-0.48
보 령 시	146,452(7.2)	123,023(6.6)	116,546(6.0)	-3.43	-0.92
아 산 시	170,399(8.4)	158,737(8.6)	188,372(9.8)	-1.41	2.95
서 산 시	148,522(7.3)	142,331(7.7)	150,504(7.8)	-0.85	0.95
논 산 시	175,765 (8.7)	150,190(8.1)	140,793 (7.3)	-3.10	-1.09
계룡출장소	11,682(0.6)	15,671(0.8)	28,883(1.5)	6.05	10.95
금 산 군	84,078(4.1)	70,897(3.8)	63,345(3.3)	-3.35	-1.90
연 기 군	90,386(4.5)	80,931(4.4)	81,821(4.2)	-2.19	0.19
부 여 군	116,888(5.8)	103,605(5.6)	90,587(4.7)	-2.38	-2.26
서 천 군	100,533(5.0)	85,241(4.6)	72,903(3.8)	-3.25	-2.62
청 양 군	53,621(2.6)	45,736(2.5)	40,086(2.1)	-3.13	-2.22
홍 성 군	105,482 (5.2)	91,549(5.5)	93,790(4.9)	-0.76	-1.34
예 산 군	132,503(6.5)	110,045(5.9)	100,602(5.2)	-3.65	-1.51
태 안 군	83,500(4.1)	72,206(3.9)	67,947(3.5)	-2.07	-1.03
당 진 군	135,638(6.7)	122,182(6.6)	120,818(6.3)	-2.07	-0.19

자료 : 충청남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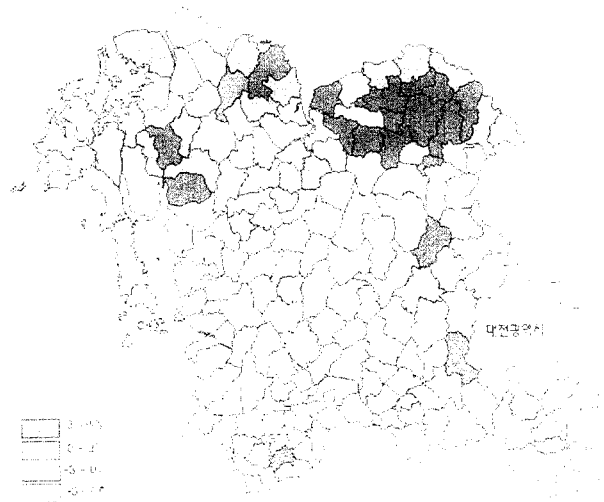
동 읍 면을 대상으로 인구의 규모 밀도 및 변화 특징을 살펴보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과 정체 또는 쇠퇴상태에 있는 지역들로 차별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洞地域은 모든 지역이 인구 규모도 크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읍지역 중에서는 성거 당진 조치원 홍성 대산 태안 성환 청양 예산 등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면지역은 대부분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국가간선망의 결절점, 산업단지 주변에 인구 성장지역이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면지역 중에서는 천안시 일대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는 당진 예산 논산 부여 서천의 일부 면들의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다.



[그림-1] 동 읍 면별 인구규모 분포('00)



[그림-2] 동 읍 면별 인구변화 추세('95~'00)



[그림-3] 동 읍 면별 인구밀도 분포('00)

3. 인구동태

1990년의 출생률과 사망률 및 순증감은 각각 12%, 0.9%, 0.3%였으나 1998년에는 출생률과 사망률 및 순증감률이 각각 1.3%, 0.8%, 0.5%로서, 인구의 자연적 변동률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자연적 변동에 의한 순증감인구는 1990년의 6,731명에서 1998년에는 9,661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사회적 이동에 의한 인구 변동률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2.0%에서 -1.1%로 낮아지다가, 1995년에는 0.1%로서 전입초과로 전환되었으나, 2000년에 다시 전출초과로 전환되었다. 특히 1995년 이후는 전입과 전출인구 규모가 그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전입인구 규모가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사회적인 순이동 인구규모는 0.5~0.8%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말 현재 시 군별 인구이동 특징은 천안시 아산시가 높은 인구 흡인력(14,725명)으로 인구변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통합시 중에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가 충청남도의 총전·출입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군지역은 총전·출입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모든 군에서 순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5] 충청남도의 인구동태 추이

(단위 : 인, %)

년도	총인구	사회적 변동			자연적 변동			총변동
		전입	전출	순이동	출생	사망	순증감	
1990	2,027,766(100.0)	225,083(11.1)	265,674(13.1)	-40,591(-2.0)	24,586(1.2)	17,855(0.9)	6,731(0.3)	-33,860(-1.7)
1991	1,882,306(100.0)	221,459(11.8)	258,829(13.8)	-37,370(-2.0)	21,924(1.2)	15,885(0.8)	6,039(0.3)	-31,331(-1.7)
1992	1,872,095(100.0)	205,298(11.0)	233,588(12.5)	-28,290(-1.5)	22,533(1.2)	15,115(0.8)	7,418(0.4)	-20,872(-1.1)
1993	1,827,911(100.0)	221,321(12.1)	245,580(13.4)	-24,259(-1.3)	22,298(1.2)	14,864(0.8)	7,434(0.4)	-16,825(-0.9)
1994	1,844,692(100.0)	214,126(11.6)	234,753(12.7)	-20,627(-1.1)	22,253(1.2)	15,386(0.8)	6,867(0.4)	-13,760(-0.7)
1995	1,852,361(100.0)	253,838(13.7)	251,923(13.6)	1,915(0.1)	22,858(1.2)	15,423(0.8)	7,435(0.4)	9,350(0.5)
1996	1,878,236(100.0)	258,224(13.7)	246,037(13.1)	12,187(0.6)	23,240(1.2)	14,834(0.8)	8,406(0.4)	20,593(1.1)
1997	1,903,171(100.0)	283,331(14.9)	269,231(14.1)	14,100(0.7)	24,323(1.3)	15,114(0.8)	9,209(0.5)	23,309(1.2)
1998	1,919,308(100.0)	262,993(13.7)	253,628(13.2)	9,365(0.5)	24,010(1.3)	15,065(0.8)	8,945(0.5)	18,310(1.0)
1999	1,926,243(100.0)	280,280(14.6)	132,113(6.9)	148,167(7.7)	23,767(1.2)	14,812(0.8)	8,955(0.5)	157,122(8.2)
2000	1,930,234(100.0)	265,599(13.8)	273,341(14.2)	-7,742(-0.4)	24,480(1.3)	14,819(0.8)	9,661(0.5)	1,919(0.1)

주 : 순이동 = 전입 - 전출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각년도



[표-6] 충청남도의 인구이동에 대한 시 군별 기여도('00)

(단위 : 인, %)

구 분	총이동		시군내이동	시군간이동		시도간이동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충남	265,599(100.0)	273,341(100.0)	105,655(100.0)	40,738(100.0)	40,738(100.0)	119,206(100.0)	126,948(100.0)	7,742
천안시	87,854(33.1)	74,173(27.1)	41,041(38.8)	12,354(30.3)	7,603(18.7)	34,459(28.9)	25,529(20.1)	13,681
공주시	17,722(6.7)	19,143(7.0)	7,900(7.5)	2,525(6.2)	2,554(6.3)	7,297(6.1)	8,689(6.8)	1,421
보령시	14,473(5.4)	17,010(6.2)	7,305(6.9)	1,843(4.5)	2,225(5.5)	5,325(4.5)	7,480(5.9)	-2,537
아산시	30,963(11.7)	29,919(10.9)	12,354(11.7)	6,792(16.7)	7,301(17.9)	11,817(9.9)	10,264(8.1)	1,044
서산시	20,661(7.8)	22,673(8.3)	10,043(9.5)	2,913(7.2)	3,392(8.3)	7,705(6.5)	9,238(7.3)	-2,012
논산시	2,478(9.3)	26,589(9.7)	7,747(7.3)	1,975(4.8)	2,021(5.0)	15,059(12.6)	16,821(13.3)	-1,808
금산군	7,189(2.7)	7,979(2.9)	1,613(1.5)	413(1.0)	459(1.1)	5,163(4.3)	5,907(4.7)	-790
연기군	9,242(3.5)	10,000(3.7)	1,681(1.6)	1,165(2.9)	1,640(4.0)	6,396(5.4)	6,679(5.3)	-758
부여군	7,473(2.8)	9,745(3.6)	2,227(2.1)	1,368(3.4)	1,740(4.3)	3,878(3.3)	5,778(4.6)	-2,272
서천군	6,497(2.4)	9,068(3.3)	2,520(2.4)	684(1.7)	983(2.4)	3,293(2.8)	5,565(4.4)	-2,571
청양군	3,463(1.3)	4,390(1.6)	635(0.6)	991(2.4)	1,153(2.8)	1,837(1.5)	2,602(2.0)	-927
홍성군	8,307(3.1)	10,367(3.8)	2,429(2.3)	2,025(5.0)	2,452(6.0)	3,853(3.2)	5,486(4.3)	-2,060
예산군	8,336(3.1)	10,581(3.9)	2,322(2.2)	2,069(5.1)	2,883(7.1)	3,945(3.3)	5,376(4.2)	-2,245
태안군	6,864(2.6)	7,347(2.7)	1,473(1.4)	1,785(4.4)	1,739(4.3)	3,606(3.0)	4,135(3.3)	-483
당진군	11,774(4.4)	14,357(5.3)	4,365(4.1)	1,836(4.5)	2,593(6.4)	5,573(4.7)	7,399(5.8)	-2,583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1.

[표-7] 충청남도의 연령별 성별 인구구조('95~'00)

(단위: 인, %)

구분	1995			2000			연령별 구성비		성비		연령간 증가율('95~'00)		
	계	남	여	계	남	여	1995	2000	1995	2000	계	남	여
합계	2,852,361	929,581	922,777	1,921,604	966,413	955,191	100	100	101	101	0.74	0.78	0.69
0-4	117,248	62,239	55,009	125,804	65,714	60,090	6.3	6.5	113	109	1.12	1.09	1.78
5-9	115,219	59,636	55,583	134,338	71,163	63,175	6.2	7.0	108	113	3.12	3.19	2.70
10-14	151,861	77,062	74,712	121,326	63,006	58,320	8.2	6.3	163	108	-1.38	-3.95	-4.81
15-19	182,776	92,076	90,700	151,296	77,316	73,980	9.9	7.9	102	105	-3.71	-3.13	-3.99
20-24	190,673	105,090	85,583	159,641	85,760	73,881	10.3	8.3	123	116	-3.49	-3.98	-2.90
25-29	143,970	78,621	65,349	157,539	85,509	72,030	7.8	8.2	120	119	1.82	1.69	1.97
30-34	139,342	72,646	66,696	154,293	81,263	73,030	7.5	8.0	109	111	2.06	2.27	1.83
35-39	139,953	72,572	67,381	153,871	81,062	72,809	7.6	8.0	108	111	1.91	2.24	1.56
40-44	109,183	55,989	53,194	146,508	76,387	70,121	5.9	7.6	105	10	6.0	6.41	5.68
45-49	96,168	48,187	47,981	110,918	56,438	54,480	5.2	5.8	100	104	2.90	3.21	2.57
50-54	96,455	45,462	50,993	96,283	48,674	47,609	5.2	5.0	89	102	-0.04	1.37	-1.36
55-59	104,242	48,578	55,664	94,758	43,720	51,038	5.6	4.9	87	86	-1.89	-2.09	-1.72
60-64	91,327	42,566	51,761	99,970	45,284	54,686	5.1	5.2	82	83	1.17	1.25	1.11
65-69	65,080	27,833	37,247	87,422	37,912	49,510	3.5	4.5	75	77	6.08	6.38	5.86
70-74	48,276	20,194	28,082	56,798	22,768	34,030	2.6	3.0	72	67	3.30	2.43	3.92
75-79	30,451	11,717	18,734	38,155	14,561	23,594	1.6	2.0	63	62	4.61	4.44	4.72
80-84	17,176	5,530	11,646	20,291	6,880	13,411	0.9	1.1	47	51	3.39	4.47	2.86
85이상	10,018	2,286	7,732	12,393	2,996	9,397	0.5	0.6	30	32	4.35	5.56	3.98

주: 외국인 제외 자료: 충청남도 1996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2001

4. 인구구조의 변화

1995년~2000년 사이의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49세 이하 연령층의 전체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74.0%에서 73.6%로 감소하였다. 인구피라미드 형태로 보면 충남의 인구구조는 폭이 좁은 鐘形의 인구구조에서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총인구의 성비는 변함없이 101을 나타내고 있으나, 0~4세, 25~29세 연령층에서는 남초(男超)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여성인구 비율이 높고, 5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여성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여초(女超)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 계층별 인구증가를 살펴보면 1995~2000년 사이에 외국인을 제외한 총인구는 0.74%가 증가했으며, 남성인구의 증가율이 0.78%로 여성인구의 증가율 0.69%보다 높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0~9세, 25~49세,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이 같은 인구증가는 0~9세 연령층의 자녀를 동반한 25~49세 연령층의 전입과 60세 이상 연령층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40~44세 연령층의 연평균 증가율이 6.0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10~24세 연령층에서는 -3.49~ -4.38%로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50~59세 연령층에서도 -0.04~ -1.8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54세 이하 연령층의 절대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연령층은 1995년의 265,328명에서 2000년에는 315,029명으로 49,701명이 증가(연평균 3.49%)함으로써 인구의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어, 노령인구를 위한 적절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8] 충청남도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95, '00)

(단위 : %)

구분	1995		2000	
	남	여	남	여
85이상	0.2	0.8	0.3	1.0
80-84	0.6	1.3	0.7	1.1
75-79	1.3	2.0	1.5	2.5
70-74	2.2	3.0	2.4	3.6
65-69	3.0	4.0	3.9	5.2
60-64	4.6	5.6	4.7	5.7
55-59	5.2	6.0	4.5	5.3
50-54	4.9	5.5	5.0	5.0
45-49	5.2	5.2	5.8	5.7
40-44	6.0	5.8	7.9	7.3
35-39	7.8	7.3	8.1	7.6
30-34	7.8	7.2	8.4	7.6
25-29	8.5	7.1	8.8	7.5
20-24	11.3	9.3	8.9	7.7
15-19	9.9	9.8	8.0	7.7
10-14	8.3	8.1	6.5	6.1
5-9	6.4	6.0	7.4	6.6
0-4	6.7	6.0	6.8	6.3

자료 : 충청남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1995, 2000.

5. 결론 및 정책제언

충남도의 전반적인 인구변화를 보면, 199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4년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 충남의 서북부지역의 인구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1995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여 2001년 현재 1,928천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란 명분아래 수도권 규제를 완화됨에 따라 총인구의 증가율은 감소추세를 보여 2001년에는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지역별 인구분포는 수도권의 인접지역인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등 서북부지역과 경부축상의 연기군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나머지 지역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며 특히 동지역의 인구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충남도내의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러한 불균형 성장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충남도는 서해안지역의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며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충남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1995~2000년 사이에 학령인구인 10~24세 연령층의 인구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환경이 미흡하여 젊은 학생층의 역외 유출은 심한 반면에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개발정책이 물리적인 개발에 치중하기보다는 교육·문화, 노인복지 등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